

## 목포대·광주보건대 '글로벌 30' 선정... 전남대 탈락

목포대 '글로벌 Only-1' 육성  
광주보건대 '글로벌 보건 연합'  
정부, 학교당 1000억원 지원  
전남도·광주시도 지원 나서  
전남대, 거점국립대 위상 타격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에 국립목포대와 광주보건대(연합)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대와 동신대(연합)는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으나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대학 30'에 최종 포함될 국립목포대와 광주보건대(연합)를 포함한 '2024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Glocal, Global+Local) 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목포대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 그린 해양에너지에 특화된 6개의 '글로벌 Only-1'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학사구조 개편, 전남도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추진했다.  
전남도도 글로벌 대학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난해 순천대의 글로벌 대학 지정과 올해 목포대 본지정까지 끌어냈다.  
글로벌대학 전담 지원 조직인 대학협력TF를 도청 기구로 꾸려 연계사업 발굴과 지원에도 나섰다.  
전남연구원과 전남 테크노파크도 지역 산업 현황, 산업육성계획 등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 컨설팅과 지자체 지원전략 발굴, 실행 계획서 작성을 지원했다.  
광주보건대연합(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은 '한달빛 글로벌 보건 연합대학'을 구성해 보건 의료계 열 전문대학 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합대학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 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아시아 최고 전문대학을 목표로, 3개 보건대학교가 연합해 결성한 단일 거버넌스다.  
광주 보건 특화캠퍼스에는 헬스케어, 헬스테크, 늘·돌봄 등 3개 스쿨과 지산학 협력을 전담할 메디 휴먼케어 특화센터, 현장실습을 위한 기반 시설인 입원환자 모의실습 배움터(시뮬레이션 러닝센터)가 구축된다.  
광주시도 2029년까지 총 400억원의 직·간접비를 광주보건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초광역 메가 캠퍼스를 구축해 세계적인 수준의 융·복합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모델을 제안했으나 최종 판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전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본지정 평가에



"아, 가을인가..." 밤최저기온 21.9도를 기록해 8월 들어 가장 선선했던 28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전평재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드넓은 하늘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한낮 폭염 계속... 열대야는 한풀 꺾여

폭염 위기경보 심각→경계 조정  
광주·전남 열대야 28.6일 기록

한달 넘게 광주·전남에 맹위를 떨치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지만, 열대야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을 덮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면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돼 전남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열대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29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1~35도, 30일

낮 최고기온은 32~35까지 치솟겠다. 이러한 한 낮 무더위는 9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40일째 이어지는 폭염특보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산신'이 덥고 습한 수증기를 한반도에 유입해 광주·전남지역의 폭염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열대야는 주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열돔현상이 사라져 낮사이 뜨겁게 대위했던 지표열기가 내

려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수축한 상황이지만, 9월 초 티베트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강화될 수 있어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7일까지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는 22일, 열대야일수는 28.6일을 기록했다. 한편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28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울었으나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연거푸 탈락, 거점국립대 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남대가 탈락함에 따라 광주에서 사업 2년차를 맞는 글로벌 대학에 포함될 4년제 대학은 없다.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선정됐다.  
전남대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더 크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신대는 초당대, 목포과학대와 함께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구상을 제시했다. 지자체장, 대

학총장, 지역혁신기관 간 연합사회를 구성해 공동편드를 조성하고 전남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고교 연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내년에도 제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2년차인 올해까지 2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10개 안팎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대학이 제시한 계획의 적정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과 투자 등

37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중·장년 1인 가구 18%가 고독사 위험 ▶6면
- 한 눈에 보는 파리 패럴림픽 17개 종목 ▶18면
- 팔도 핫플레이스 - 강원도 젊은달 와이파크 ▶22면

"의대정원 이미 공표  
유예하면 입시 혼란"  
대통령실 밝혀, 20조원 투입 계획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조원의 재정 투입 계획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인크로 마르키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겠지만 추석이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대규모로 의사가 빠진 병원에 대해서는 매일 진료량과 수술, 입원 환자 숫자 등을 체크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로에 가깝다"며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